

한라, 위성원격영상사업 진출 美, 이오셋사와 합작

한라그룹이 미국 스페이스 이 미징 이오셋사와 손잡고 위성원격영상사업에 진출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고해상도의 지표사진과 자료를 손쉽게 입수해 사용할수 있게 됐다.

한라그룹은 지난 5월 13일 한라그룹본사에서 정몽원 회장이 미국 이오셋사 존 코플회장과 합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정보시스템(대표 문정식)은 1단계로 이회사에 1천2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이회사의 위성이 촬영한 지표사진등 위성원격영상을 한라그룹이 전세계에 공급하고 영상이 공동의 부가서비스에 나선다.

이오셋사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패트리오트미사일로 유명한 레이디온사, 일본의 미쓰비시등이 출자한 위성원격영상업체로 해상도가 1m인 초정밀고해상도 원격영상(CRSS)을 촬영할수 있는 위성과 해상도 30m의 IRS위성, 해상도 30m의 랜드셋위성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격영상은 지구상공 4백~1천2백km에 위성을 띄워 지구둘레를 회전하면서 고해상도 센서를 이용해 지구를 촬영한 사진. 초기

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됐으나 최근 기상관측 환경오염조사 농작물작황조사 이동통신사업 지하매설물관리 토목 통신등 민간분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리돔 위성발사 성공 저궤도 위성 5개 발사

우리나라 등 세계 14개국 17개 기업이 참여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국제컨소시엄인 이리돔사가 GMPCS(위성이동통신)사업자중 최초로 위성발사에 성공했다.

국내 이리돔사업투자회사인 SK텔레콤(사장 서정욱)과 이리돔사업전담회사인 이리돔코리아(사장 목정래)는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오후 11시55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인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이리돔위성체 5기가 델타Ⅱ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이리돔위성은 지난 1월 9일 점화장치의 기술적 문제로 발사되지 못한다 이어 군사용 델타Ⅱ 로켓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장기간 발사가 지연됐다.

이리돔시스템은 66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 상호 연결해 지구촌을 단일통화권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위성시스템이며 포켓 사이즈의 단말기하나로 사막이나

밀림, 극지방 등 전세계 어디서나 고품질의 자유로운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이리돔사업에는 미국의 모토롤라, 일본의 DDI 등 14개국 17개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8천2백만달러(총지분의 4.5%)를 투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관문국 관할권과 서비스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리돔사는 GMPCS사업자중 최초로 내년 9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위성팩시머, 데이터전송, 팩스서비스 등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사된 이리돔위성은 무게 6백55kg으로 수명은 5~8년이며 위성자체의 통신능력이 뛰어나 위성에 대한 지상시스템의 통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리돔사는 총 66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는 이리돔위성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비위성 7기를 포함해 올해 45기, 내년초 28기를 발사한다. 이리돔코리아는 이번 위성발사의 의미에 대해 "정지궤도위성시대에서 저궤도위성시대로 위성통신의 흐름을 바꾸어놓은 위성산업의 패거이며 GMPCS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신호탄"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발사된 이리돔위성은 국내에 건설

중인 위성관문국과의 통신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랄/록히드마틴 위성 계약 수주 활발

네 대의 새로운 통신 위성이 국제적 커스터머의 주문으로 스페이스 시스템즈 로랄과 록히드마틴사에 의해 제작될 예정이다.

Intelsat은 FOS(follow-on series)2 계획을 위한 두 대의 고출력, 고성능 위성을 제작할 업체로 로랄사를 선정했다. 앞으로의 위성 제작을 옵션으로 하는 6억 달러 상당의 동 계약에는 2000년에 두 위성을 인도양 위의 궤도 위치로 진입시키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 위의 FOS2 위성은 44 C-밴드와 12 Ku-밴드 트랜스폰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로랄사는 중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고출력 통신위성 제작 주문을 따내기도 했다. 98년에 발사될 동 위성(Chinasat 8)은 중국에 의해 띄워지는 위성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동 사는 Chinasat 7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록히드마틴사는 한국통신의 주문으로 3번째 무궁화위성을 제작하는 1억 8백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동 위성은 99년 7월에 발사될 예정이다. 대우, 한리중공업, 현대전자, 대한항공이 주

하도급 계약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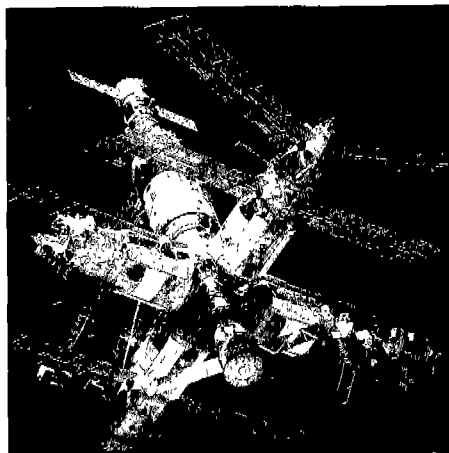
무궁화 1호와 2호는 95/6년에 발사되었으나, 첫 번째는 델타 2 발사체를 떠난 후 부분적 이상으로 인해 10년으로 계획되었던 궤도중 수명이 반으로 감소되었다.

우주정거장 '미르' 정비

최근 몇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승무원들이 정비를 수행함에 따라 미르 우주 정거장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성공적인 수리의 결과로 정거장 내에서의 장기간 임무수행에 대한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러시아는 노후한 시스템이 아직 걱정거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르 계획을 축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르의 상태가 호전되



우주에서의 미르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NASA는 지상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사이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상호 협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몇가지는 과거 '소비에트 시대' 식의 운영 전통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伊 Alenia 소형 위성 제작을 위해 공장 신설

Alenia Aerospazio의 우주 부문은 소형 위성 및 안테나의 신속한 조립, 결합,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로마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다.

3천만 달러의 이 시설은 글로벌스타 이동 통신 위성 사업을 위한 56개의 위성과 112개의 고성능 안테나의 생산을 돕고 있으며 매달 4개의 위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공장은 총 면적 20,000 평방 피트(6,000 평방미터)로 여기서 13,000 평방 피트는 청정실이 차지하고 있다. 공장의 각 구역은 상이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즉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각각 상이한 유평하중의 위성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